

## 중국 근대 신청년 잡지 속의 페미니즘 번역 작품이 중국사회와 번역에 미친 영향\*

김진아  
(한국외대)

### 서론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언어의 혼잡이 생기면서 인류는 상호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류는 통역과 번역의 시대를 열어갔다. 통역과 번역은 선진문물 도입, 부국강병, 사회계몽, 외세퇴치, 국제간 교류 등 인류 역사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통역사와 번역사들은 시대의 주역으로 당대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조선시대 역관들의 활동을 기록한 『통문관지』<sup>1)</sup>에 따르면 왜란 이후 조선에서는 화약의 수요가 급증하였

\* 본 논문은 2011년 교내 연구비를 받아 제작된 논문이다.

1) 8세기 초 숙종(肅宗) 연간에 조선 시대의 정치 외교 분야와 경제적 통상 분야를 체계적으로 엮은 『통문관지』를 편찬하였다. 『통문관지』는 숙종 말년에 사역원 역관(譯官)이었던 김지남(金指南)과 그의 아들 김경문(金慶文)이 중심이 되어 사역원의 상하 관원들이 다수 참여해 숙종 46년(1720년)에 초간본(初刊本)을 편찬하고 정조2년

으나, 그 원료가 되는 염초(焰硝) 만드는 방법을 몰라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는 큰 곤란을 겪고 있을 당시, 1692년(숙종 18년)에 역관(통역사) 김지남(金指南; 1654~1718)은 역관의 임무수행을 위해 판서(判書) 민취도(閔就道)를 따라 연경(燕京: 중국 북경)에 갔다가, 염초 만드는 방법을 배워와 화약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여 대량 생산에 성공하였다. 또한 김지남은 염초의 제조법을 편찬하여, 1698년(숙종 24년)에 『신전자초방(新傳煮硝方)』이라는 책을 간행하여 전국에 널리 보급하였고, 그때부터 염초를 만드는 방법이 일반화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sup>2)</sup> 인류 역사 속에서 통역과 번역은 통역사와 번역사에 의해 수많은 역할을 담당해왔다.

번역이론가 이븐 조하(Even-Zohar)의 폴리시스템 이론(Poly system Theory)에 의하면 사회문화적 역량이 번역 텍스트의 선택과 번역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폴리시스템’이란 사회 속에서 문학 및 문학 이외(extraliterary)의 것들이 서로 관련을 맺는 시스템의 집합체로서, 이 문화 속에 있는 모든 글로 쓴 것들은 폴리시스템으로 해석된다. 이븐 조하는 문학 발전에 번역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폴리시스템은 문학번역 시스템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번역이 문학 폴리시스템 속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큰 관심을 가졌고, 번역문학이 폴리시스템의 중심 구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았다. 그는 1)폴리시스템이 정형화되지 않아, 문학이 아직 ‘초보’적인, 즉 한창 구축중인 발전 단계에 있을 때, 2)문학이 관련된 문학 시스템들 속에서 ‘주변’ 혹은 ‘약자’인 시기에 처해 있을 때, 3)문학에 전환점, 위기 혹은 문학적 공백(literary vacuum)이 나타날 때, 기존의 문학은 다른 문학의 힘을 빌어 새로운 사상과 내용이나, 형식과 기교를 도입할 뿐 아니라, 번역을 통해서도 이를 공급받았다고 하였다(Even-Zohar 1978 120-123). 중국의 당시 상황은 이븐 조하가 분석한 세 번째 상황에 해당되며, 여러 기성 문학 모델이 청년 문학가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였던 시대로, 번역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한 중요해져, 문학의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창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778년)에 첫 중수본(重修本)을 시작으로 고종 25년(1888년)까지 중간본(重刊本)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바뀐 규례(規例)가 많고 추가할 기사(記事)가 많아져, 그 속편을 편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2) 외교사고전국역 1 통문관지 전4집 중 『국역통문관지 2』(44)참조

중국은 근대사회로 들어서면서 봉건제도, 봉건문화제도에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바로 5.4 신문화운동이다. 이는 문화에 대한 비판과 대중계몽에서 출발하였다. 중국의 당시 사회문화 폴리시스템은 문학의 전환점, 위기 혹은 문학적 공백이 나타난 시점에서 번역은 사회문화 폴리 시스템 안에 있는 하나의 개체로 문학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번역문학이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이어져 폴리 시스템의 중심 업무를 구축해 나갔다. 따라서 5.4신문화운동을 주도한 문학, 정치, 윤리적 혁명은 당시 외국문학작품 번역과 긴밀한 연관이 있었으며, 무엇을 번역할 것인가, 어떤 작품을 번역할 것인가는 5.4시기 처해 있는 사회문화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문학적, 정치적, 도덕적 혁명을 이끄는 데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번역이었다.

본 논문은 중국 근대<sup>3)</sup> 사회 초기에 해외 유학을 마친 신지식인들이 중국 근대사회 재건과 국민 계몽, 여성 각성의 일환으로 중국보다 앞서 근대화를 이룬 서구의 사상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창간한 잡지 『신청년』<sup>4)</sup> 속에 게재된 페미니즘(feminism) 번역 작품들이 당시 중국사회 근대화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페미니즘 번역이론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번역연구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1. 중국 근대 사회의 페미니즘

서양에서 귀족과 여자수도사들로부터 시작된 페미니즘은 사이먼 쉐리(Simon, Sherry)가 여성 해방은 우선 언어적인 해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Simon, Sherry 2001 6) 말한 것처럼, 페미니즘은 16세기 문예 부흥기부터 유럽에서 종교번역을 하는 여성 번역가들이 번역이란 공간을 통해 사회, 정치, 애정, 결혼에 대한 여성의 강렬한 불만과 반항을 표출하였다. 19세기의 스텔

3) 중국학계에서 통용되는 근대, 현대, 당대라는 삼분법하의 근대는 1840년 아편전쟁부터 5.4운동 이전까지의 기간을 지칭한다.

4) 1915년 『청년잡지(青年雜誌)』라는 명칭으로 출발하였으나, 그 이듬해인 1916년 1월 15일 부터는 잡지명을 『신청년』으로 바꾸었다. 이 잡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50년대 이후 전개되었다.

(Madam ed Stael)<sup>5)</sup> 등의 여성 작가, 번역가들은 번역을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문학 창작 속에 녹아 있는 여성의 목소리는 전파(傳播)를 통해 정치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번역이야말로 민족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민족정신을 새롭게 더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서양의 귀족과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이 가부장적 사회의 압박과 속박으로의 탈피, 교육,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성들은 단지 한 인격체인 사람으로 대접받는 여권신장에 만족하지 않고, 남성의 기준과 잣대로 자리매김 당하는 여성이 아닌, 여성 자신의 가치와 경험을 중시하는 “여성”의 문제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페미니즘 사상과 운동은 20세기 초 중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서양의 페미니즘이 중국에 유입되어 중국에서도 19세기 말부터 페미니즘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페미니즘은 1911년에 일어난 신해혁명(辛亥革命)<sup>6)</sup>을 전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해혁명 전까지 서양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근대 중국의 페미니즘은 4가지 대표적인 개념이 존재하였다(須藤瑞代 2005 137).

### 1.1 중국 근대 사회의 페미니즘 개념

신해혁명 전까지 중국 사회에서 논의된 페미니즘에 대한 개념은 4가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1902년에 마권우(馬君武)가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뒤 역서『여권편(女權篇)』에서 처음으로 “여권(女權)”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여성해방론이 제기되었다. 이 역서는 중국 근대 사회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여권(女權)에 관한 책으로, 당시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다(劉巨才 1989). 이

5) Madame de Staël(1766~1817)은 파리에서 출생하였으며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민주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흥미가 많았던 그녀는 나폴레옹에 의해 국외로 추방되어 독일, 이태리, 영국 등지를 떠돌며 각국의 풍습과 사회제도의 차이를 보았다. 독일의 낭만주의 문학, 철학의 영향을 받은 후, 스웨덴에 머물면서 많은 작품을 썼다. 또한 각국의 낭만주의를 프랑스에 소개하였고, 낭만주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6) 신해혁명은 중국의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쑨원(孫文)이 부패한 청나라 조정을 전복하기 위해 벌인 혁명으로 10번의 혁명은 모두 실패로 끝났고, 11번째 혁명인 신해혁명으로 황제가 임금인 청나라 황실 청조(淸朝)가 멸망하고,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국가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

책에서는 남녀평등, 특별히 부부간의 평등을 강조하였다. 이 번역서를 계기로 여성해방에 관한 많은 글들이 발표되었다. (1)1903년의 진텐거(金天翮)는 「여계종女界鐘」이라는 글에서 하늘이 여성에게도 인권을 부여하였기에(天賦人權), 여성의 가치는 천금과 같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는 국민의 어머니(國民之母)와 같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궁극적인 주장은 남녀평등이었지만, 남녀의 성별 역할의 한계를 뛰어 넘지는 못하였다. 이어 (2)츄진(秋瑾)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의 “여권(女權)”을 더욱 중시하였다. 그녀는 ‘여성도 남자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盡與男子一樣的任務)’, 이를 위해서 남성의 압제 하에서 벗어나 여성도 자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녀가 말하는 여성의 자립은 전통적인 성별의 역할과 차이를 뛰어넘자는 개념이었다. 츄진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의사로 활동하였던 (3)장주권(張竹君)은 여성은 이제 남성에게 의존하는 근성을 버리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打破倚賴之根性摸索新角色)는 주장을 폈다(張竹君). 그녀가 말하는 의존적 근성이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길들여진 남성 의존적 심리 상태를 가리키며, 이를 비판하였다. 하지만 성별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성을 중시할 뿐 아니라, 여성 개인의 존재가치를 중시하였다. (4)허진(何震)은 앞서 말한 장주권보다 여성해방에 대해 더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남존여비 사상의 출발은 여성이 남성처럼 군대에 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하면서 남성들도 군복무라는 제도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즉 국가제도의 여성해방론은 존재할 수 없으며, 국가가 통제하는 틀 속에서 “천부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부국강병론자들은 그녀의 이러한 사상에 대해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하였다.

신해혁명이 성공을 거두고 1912년에 중화민국(中華民國)이 성립된 후, 여성들은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여성 참정권 문제는 <민립보民立報>와 <부녀시보婦女時報>등 당시 발간된 신문을 통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 한다는 것은 여성의 신분과 본분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많은 반대를 하였다. 1912년 3월 10일 위안스카이(袁世凱)가 대통령에 취임 한 후, 3월 19일에 남경(南京)에서 여성들에게 참정권 부여 여부에 대한 논의와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여성 참정권 문제는 부결되었다(須藤瑞代 2005 139). 이로써 서양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일어났던 페미니즘 물결이 한 풀 꺾이는 국면을 맞았다.

## 1.2 신청년 잡지의 탄생과 페미니즘의 발전

1910년경부터 약 10년 동안은 중국근대사에서 특별한 전환기로 기록된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많은 해외파 유학생들이 귀국하였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바라보면서 정치제도 변화만으로는 근대적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고 판단, 서양의 사상과 문화적 이념을 적극 수용하여 중국의 전통문화와 기존제도를 비판하고 문명 개화적인 시각에서 대중을 계몽하여 근대국가 건설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관(官)주도의 일방통행적인 정보전달이 아닌 직접 대중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잡지를 통해 이미 근대화를 이룬 혹은 근대화 과정에 있는 서구와 일본의 근대적인 이념과 사상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 문헌에 대한 번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번역이 가지는 의미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그들의 이와 같은 열망은 1915년 9월에 『신청년(新青年)』이라는 잡지 발행으로 표출이 되었다. 이 잡지는 1926년 6월까지 근 10년 동안 발행이 지속되었다가 같은 해 7월에 중단되었다. 발행 권수는 총 63권이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요구에 의해 창간된 『신청년』은 번역 문학 생산의 중심 잡지였고, 소설, 동화, 신화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막론하고 외국문학 작품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신청년』에 발표된 문장 중 번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4% 이고, 번역작품 가운데에서도 문학작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가량 되었다. 『신청년』 발간 기간 중 외국작품이 가장 많이 번역된 시기가 두 차례 있었는데, 그 중 최고봉에 이르는 때가 제4권이 발간된 때로 1918년 1월에서 6월에 해당한다. 이 때 번역된 작품 가운데 문학작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89%에 달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당시 문화운동의 문학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잔보(郭謙波)는 그의 저서 『근 50년 중국사상사(近五十年中國思想史)』에서 『신청년』 잡지는 서양 사상을 소개하며 중국의 낡은 유교적인 공자사상에 대해 신랄한 공격을 가하고 비판했다며, 『신청년』을 근 50년 이래 중국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간행물이었다라고 평가했다(郭謙波 1973 100). 『신청년』 잡지에 담긴 담론들은 크게 국가차원의 문명 개조에 대한 내용이 많

지만, 여성의 각성과 여성계몽에 관한 담론도 큰 주류를 이루었다. 『신청년』 잡지에 게재된 페미니즘 외국문학 번역 작품들은 중국사회에 다시금 페미니즘 물결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중국 근대 사회 발전에 특히 여권 신장과 여성지위 향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신청년』잡지에 담긴 여성 담론과 페미니즘 번역 작품 중 당시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신청년 잡지에 담긴 여성 담론 및 페미니즘 번역작품

### 2.1. 천두슈(陳獨秀)의 번역작품 「여성관(女性觀)」

1915년 『신청년』의 창간호에 게재된 막스 오렐(Max O'Rell)의 에세이 『여성관(Thoughts on Women)』은 천두슈에 의해 번역된 작품이다. 이는 중국 여성 해방의 태동기<sup>7)</sup>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이 시기의 가장 큰 이슈는 남녀평등과 여권신장이었다.

막스 오렐은 그동안 전통사회에서 지배-종속 관계를 유지해왔던 남성과 여성의 권력관계를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시각에서 획기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창세기 1장의 내용, 즉 아담을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들어 여성적 섬세한 손길로 다듬어진 남성은 완벽한 존재, 즉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남성은 변변찮은 다이아몬드에 불과하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성이지만, 그 남성을 조

7) 황선미의 박사학위 논문 『신청년을 통해 본 번역과 중국 근대사회-학위취득예정논문』 130-135페이지에 『신청년』의 여성 담론 시기를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해 놓았다. 첫 번째 시기는 1915년 창간호에서 1916년 12월 제2권 제4호까지이다. 이 시기는 여성해방의 태동로, 가장 큰 이슈는 남녀평등과 여권 신장이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17년 1월 제2권 제5호에서 1918년 4월 제4권 제4호까지, 여성 해방의 성장기로, 여성문제를 다양한 각도와 시각에서 분석했다. 세 번째 시기는 여성 해방의 발전기로 1918년 5월 제4권 제5호에서 1919년 4월 제6권 제4호까지이다. 이 시기는 여성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폭된 시기이다. 네 번째 시기는 1919년 5월 제6권 제5호에서 1922년 7월 제9권 제6호까지 여성해방의 쇠퇴기로 주로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여성관을 선전했던 시기이다.

중하는 것은 여성이다. 여성은 명령을 내리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지만, 세상을 호령하는 남자들을 지배하는 천부적 재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陳獨秀 1915 『新青年』 第1卷 第1号)<sup>8)</sup>라는 주장을 하면서 수천 년 동안 남자에게 짓눌려 왔던 여성들의 해방, 즉 남녀평등을 부르짖었다. 천두슈는 『신청년』 창간호에 이 번역 작품을 게재함으로써 여성 해방 운동의 첫 번째 신호탄을 울렸다.

천두슈는 더 나아가 1915년 11월 제1권 제3호에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갔던 『유럽 여걸 7인방』<sup>9)</sup>을 소개함으로써 중국 여성도 정복자의 자리를 쟁취하여 타인의 부속품이 아닌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천두슈의 이 같은 작품들은 당시 중국 여성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를 계기로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신청년』 1917년 2월 제2권 제6호에 여성문제라는 칼럼을 만들었다.

## 2.2 저우쥘런(周作人)의 번역작품 「정조론(貞操論)」

저우쥘런(周作人)은 『신청년』 제4권 제5호(1918년 5월 5일)에 일본 요사노 아키코(謝野晶子)의 논문 「정조는 도덕 이상으로 존귀하다」를 『정조론(貞操論)』이란 제목으로 번역하여 게재하였다. 이 번역 작품이 게재되자 정조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1917년 2월 제2권 제6호에 ‘여성문제’라는 칼럼에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여성 문제는 여성의 전족(纏足), 일부다처주

8) 一、女、天人也。……二、神之造婦女也。取材于男子之肋骨。此業方終。三、夫女子雖非爲發号施令而生。然其天賦之權能。足以統馭發号施令男子。四、任人之欲若何完善。惟不經女子之纖手所琢磨。只一粗糲金剛石耳……(陳獨秀, 「婦女觀」, 『新青年』 第1卷 第1号, 1915)

9) 유럽 여걸 7인방은 백의의 천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 러시아의 여성 혁명가인 소피(Sophie Perovkasa), 15세기 영국의 백년전쟁 후기에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적인 소녀 잔다르크(Jeanne d'Arc), 물리학자이면서 화학자로서 새 방사성 원소를 탐구하는 계기를 만든 퀴리(Marie Curie)부인, 프랑스 여성 과학자 클레멘스 로이어(Clemence Royer), 프랑스의 여성 혁명가이자 무정부주의자인 루이스 미셸(Louise Michel), 지롱드파의 중심이라고 일컬어진 프랑스 혁명기의 여걸인 롤랑 부인(Morie Rolland) 등을 가리킨다. 陳獨秀(1915)

의, 남존여비, 축첩, 조혼, 재혼 등이었다. 당시 중국은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여성의 재혼은 부정하고, 수절을 강요하였다. 1914년 중화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위안스카이는 ‘정조’를 지킨 여성을 표창하는 ‘포양조례(褒揚條例)<sup>10)</sup>를 공포하고 정조를 장려하고 있었다. 신문에는 정조를 지키는 부녀자 및 여인들을 칭찬하는 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번역 논문은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요사노 아키코는 그의 논문에서 남성에게는 혼전(婚前)과 혼후(婚後)를 불문하고 정조라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여성에게만 정조를 요구하는 것은 도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정조를 실천하기엔 많은 모순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조는 도덕이 아니라 일종의 취미이며 신앙이며 버릇일 뿐이다. 그러나 그 취미와 신앙은 도덕 이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劉軍 2004 44).

정조론의 번역 작품이 발표되면서 잇달아 많은 지식인들이 이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들을 글로써 피력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사회에 여성들의 정조문제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이는 봉건 사회의 여성 정조에 대한 커다란 반기였다.

### 2.3 후스(胡適)의 번역작품 「노라(挪拉)」

『신청년』 제4권 제6호에는 후스와 뤼자룬(羅家倫)이 번역한 작품 헨리크 입센의 「노라挪拉」는 당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노라挪라는 노르웨이 작품으로 영역본을 중역한 작품이다. 작품 노라는 1940년대까지 전 세계에 번역, 공연되었고, 전 세계에서 붐을 일으켰다. 세 아이의 어머니이며 변호사, 은행장으로 성공한 남편에게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던 노라는 남편의 위선적이고 비겁한 모습을 보게 된 후, 자신을 노예처럼 대하는 남편에게서 자신의 존재가 노예에 불과했다고 깨닫고 집을 떠나게 된다. 세 자식을 남겨두고 떠나는 노라는 험한 세상풍파를 헤치고 살아가기에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한 남자의 노예, 소유물로 살기 보다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10) 포양조례는 왕조하에서 황제가 행한 표창제도로 표창 조건의 최고는 효행절탁(孝行絕卓)이고, 다음으론 절렬정조(節烈貞操)였다.

것이 더 행복하고 자유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과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노라는 기혼 여성에게 가부장적인 가정에 대한 반항과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전형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 여성들이 탈출하려는 것은 가정이 아닌 평등한 신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냉혹한 가정이었고, 그들이 찾고 얻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철저한 해방이 아닌 기본적으로 서로가 존중하는 훈훈한 가정이었다. 이 작품을 번역한 후스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여성문제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고, 1919년에는 중국판 노라인 단막극 「중신대사(終身大事)」를 창작하여 『신청년』 제6권 제3호에 실었다. 내용은 여주인공이 원하던 자유결혼이 뜻대로 안되자 자신의 애인과 도망간다는 내용이었다. 중국에서 1923년에 연극 무대에 오른 「중신대사」는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였고, 이는 여성해방의 최대의 상징적인 징표가 되었다. 입센은 근대 부르주아 가정의 문제를 제기했다면 후스는 이를 근대 봉건주의 문제로 논제를 살짝 바꾸어 번역하였다.

중국의 여성해방은 서양과 달리 여성의 자아의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발기인, 번역자 모두 남성이었다. 여성들은 부권사회에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였던 것이 봉건주의에 대항하여 봉건주의의 속박과 질고로부터 벗어나, 정치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는 여성의 자아의식이 싹트는 수준이었지, 여성 내부 세계와 내면의 체험, 성찰과 반성 등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신청년』잡지에 게재된 번역 작품들은 당시 사회에 파문을 던졌으며, 여성을 계몽하는 단초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다. 그 결과 중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난다.

### 3. 페미니즘 번역작품이 중국사회와 번역에 미친 영향

#### 3.1 5.4 신문화 운동유발

19세기 전엽 아편전쟁(1840년)을 계기로 중국은 점차 반식민, 반봉건 사회로 접어들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대포를 앞세워 쳐들어오는 유럽 열강에 서양문화세계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중화민국을 건설하였으나, 다시금 봉건사회로 회귀하는 상황을 우려의 눈길로 바

라보던 당시 신지식인들은 잘못된 전통문화를 비판하고 선진 세계를 열어나가 고자 하는 열망인 신문화 운동을 일으켰다. 신문화 운동은 1915년 천두슈가 창간한 『신청년』을 계기로 일어났다. 당시 신문화 운동의 주역은 루쉰(魯迅), 후스(胡适), 리따젠(李大釗), 첸센통(錢玄同), 류반농(劉半農)등 이었다. 이들은 새로운 문화진영을 구축하여 1919년에 5.4운동<sup>11)</sup>을 계기로 신문화운동을 선도하였다. “과학”과 “민주”라는 양대 깃발을 내걸고, 전통사회, 구습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서양문명을 모범사례로 들면서 새로운 현대문명 사회를 이룩하자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후에 맑스 레닌주의가 중국에 널리 유입되면서 신문화운동은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성격을 띤 문화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견이 팽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역사상 춘추시대 이후 다시금 백가쟁명의 국면을 맞는 것과 같았다. 신문화 운동은 1926년까지 지속되었다. 신문화 운동의 주역들은 『신청년』 잡지를 창간하여 정치, 경제, 종교, 여성 등 여러 분야에서 해방을 부르짖었고, 그 중 여성해방은 신문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 천두슈는 1916년 초에 「1916년(一九一六年)」이란 글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젊은이들은 피정복자(Be Conquered)가 아닌 정복자(To Conquer)의 위치에 서야한다고 하였고, 타인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 현재 인류 가운데 남성과 백인은 정복자의 위치에 있으며, 여성과 백인이 아닌 인종들은 모두 피정복자의 위치에 처해 있음을 수치스럽게 여기라고 하였다. 그는 특히 여성들은 남성이 지배하는 피정복자의 위치에 머물지 말고, 남성의 부속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尹擘 2004 70). 그는 또한 서양처럼 새로운 성별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여성해방을 신문화 운동의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 신문화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여성해방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청년』이 제창한 신문화 사상은 정치 운동의 도움을 받아 무서운 속도로 전국에 퍼지게 되었다. 천위강(陳玉剛)은 그의 저서 『중국번역문학사고(中國翻譯文學思考)』에서 『신청년』의 번역활동은 후에 5.4신문화 운동을 일으켰다고

11) 5.4운동(五四運動)은 1919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베이징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 혁명운동으로, 5.4운동은 애국 운동에 그치지 않고, 봉건주의에 반대하고 과학과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문화운동의 요소를 띤 광범한 민중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가했다(陳玉剛 1989 109).

### 3.2 페미니즘 문학사조 형성

『신청년』에 게재된 번역작품과 여러 창작글들은 5.4 신문화 운동을 불러 일으켰고, 5.4 신문화 운동의 영향으로 재능이 출중한 페미니즘 여성 작가들이 대거 배출되었다. 5.4 신문화 정신을 이어받은 여성작가들은 신문학사조(新文學思潮)를 탄생시켰다. 이들은 20세기 중국 여성문학사상의 제1세대 페미니즘 작가로 발돋움하였다. 대표적인 페미니즘 작가로는 바이웨이(白薇), 세빙잉(謝冰瑩), 샤오홍(蕭紅), 덩링(丁玲) 등이다. 이들은 모두 자유연애를 선택한 사람들로 이들의 펜 끝에서 묻어나온 작품들은 봉건사회의 추악한 면과 반인륜적인 면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사람들에게 경종과 함께 때론 감화력을 가져다주었다. 이들이 다루는 주제는 주로 (1)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부모에 의해 강요된 결혼도 모자라 남편과 애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일부종사해야 한다는 유교 전통으로 인한 모든 인고를 참아가는 여성의 비극을 작품 속에 반영하였고, (2)가문의 대를 잇는 남성의 성적 도구에서 탈피 여성 자신이 성욕의 주체가 되는 애정관을 다루었다. “밥 굶어 죽는 일보다 수절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餓死事小失節事大)”라는 당시 봉건사회의 외침을 과감히 탈피하라는 여성 계몽 작품들을 발표하였다(金文野 2001 28). 이에 대한 대표작으로는 덩링(丁玲)의 『사비여사의 일기(莎菲女士的日記)』가 있다(<小說月報> 19卷 2号). 사비여사의 성적심리를 대담하게 묘사하고 성적욕망에 대한 여성의 열망을 다루어 여성의 성적 욕망도 남성과 다를 바 없다는, 여성의 성적욕망의 분량을 남성의 분량과 동등하게 다룬 작품으로 페미니즘 색채가 매우 강한 작품이다. (3)기형적인 연애를 묘사해 봉건사회의 죄악, 부패, 반인륜적인 면을 거침없이 폭로하였다. 여성의 순수한 시각에서 여성의 주체의식 심지어 페미니즘 의식을 부각시켜 강렬한 페미니즘 사상을 표출하였다. 5.4 시기에 최초로 형성된 페미니즘 문학사조는 여성작가들의 창작을 통해 집중 조명되었다. 여성작가 중 덩링은 신문학사에서 성숙한 여성의 내면세계를 세상에 파헤친 첫 번째 여성작가이다. 여성의 성, 여성을 보는 남성의 시각, 백마 탄 왕자에 대한 환상, 영과 육, 이상과 현실의 충돌 속에서 고뇌, 성적인 체험, 신식가정에 대한 행복감과

실망감 등, 그는 신문학사에서 부권전통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한 첫 번째 여성이기도 하다. 또 다른 여성 작가 메이린(美琳)은 5.4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은 신여성으로 그녀는 가정이 여성의 종착역이 아니며, 신식가정 또한 여성해방의 종착역이 아니며, 여성 해방은 사회해방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성 또한 사회 속에서 해방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4 신문화운동하에서 탄생된 페미니즘 문학사조는 신문화운동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20세기 중국 페미니즘 문학사조의 초석이 되었고, 이후 페미니즘 문학 실천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90년대 여성작가들의 창작에 더욱이 페미니즘 사상계몽적인 측면에서 영향력과 그 가치를 발휘하였다.

### 3.3 민족문학의 발전과 번역이론의 형성

5.4신문화 운동 전후로 중국 문학 시스템의 틀이 정형화 되지 않을 당시, 문학발전은 새로운 문학 구축 단계에 처해 있었다. 중국문학 시스템은 대량의 번역 작품을 통해 자신의 문학을 풍성하게 하였으며, 이로써 문학혁명을 진행시켰다. 당시 중국 문학에는 몇 가지 언어가 존재했다. 고문(古文)과 백화문(白話文)이다. 즉 서면어와 구어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다. 각 지방의 방언도 존재하였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민족문학에 대해 『신청년』의 번역 작품은 초기에는 문언문 형식으로서의 번역이 대부분이었지만, 후에는 백화문으로 번역하여 새로운 근대문명을 구현하기 위해 전통적 글쓰기인 ‘문언’의 질서를 해체하고 ‘백화’로의 번역형식을 창출해 나갔다.

이분 조하의 관점으로 볼 때 민족문학이 “약세”에 처해 있을 때는 번역문학을 빌어 새로운 사상과 내용을 구축해 나간다고 하였다. 당시 중국문학은 세계문학의 시스템 속에서 “약세”에 처해 있었고 번역문학이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 이리 할 경우 번역 활동은 주로 새롭고 중요한 모델에 참여하고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번역활동의 주된 힘은 새로운 번역모델을 창조하는데 있다. 따라서 번역자의 주요 임무는 자국문학 형식에서 기존의 번역모델을 찾기보다는 목표 시스템 속에서 번역의 새로운 형식, 기술, 소재, 제제 등을 발굴하여 번역을 통해 전체 사회문화 시스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한다(Gentzler 2007 116). 따라서 번역자는 단지 자국 문학 형식에서 기존의 모델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원문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여 번역자가 자국의 전통적인 규범을 깨뜨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번역문은 타당성(adequacy)의 측면에서 원작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여, 원문 속에 담긴 새로운 요소가 대부분 도착어 문화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 결과 원작의 내용과 형식을 따르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원작과 번역물의 거리가 좁아진다. 따라서 당시 후스가 주창한 백화문 쓰기 운동과 루쉰이 당시 번역에서 주장하는 직역과 이국화의 번역전략은 각각 새로운 문학과 번역이론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1917년 1월 『신청년』 제2권 제5호에 후스는 「문학개량추의(文學改良趨議)」의 글을 발표하여 당시 중국은 사대부들의 전유물인 문언문으로 모든 창작을 멈추고, 백화로 시와 문학을 쓰기를 주장하였다. 번역가이자 작가였던 루쉰은 번역 작품 선택에 있어서 무엇보다 번역 목적을 고려해 작품을 선택, 번역해야 한다고 하였고, 번역 전략으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는 독자를 고려해서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원작의 스타일을 보존해야 하는 충실성을 강조하였다. 번역된 번역문이 비록 유창하지 않더라도 원문의 문법 또한 표현을 해내야하는 직역을 강조하였다(魯迅 1935)<sup>12</sup>. 중국문학은 번역 작품을 통해 구문학의 잔재인 문언문의 속박에서 벗어나 백화문의 사용이 문언문을 대체해 나갔고, 번역이론에 있어서는 이국화의 번역전략을 출현시켜 번역이론을 발전시켰다.

### 3.4 페미니즘 번역연구에 미친 영향

『신청년』 잡지는 중국의 ‘근대화’의 중심에 서있었다. 그 전제는 서양 문헌

12) 魯迅(1935)이 쓴 문장 「『題未定』草」에 나온 원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凡是翻譯，必須兼顧兩面，一當然力求其易解，一則保存原作的丰姿。易解是爲了讀者易于閱讀。保存洋气。對原作負責，也是對讀者負責。魯迅主張譯文要‘盡量保存洋气’，也既是‘保存異國的情調’，保存原作的風姿。有些地方仍然宁可翻譯得不順口，保存原來的精悍的語气。(무릇 번역은 두 가지 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 한 가지는 독자들이 쉽게 이해가 되어야 하고, 원작의 원래의 자태를 보존해야 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은 독자를 위함이고, 이국화를 보존하는 것은 원작에 대한 충실성과 책임감에 기인한 것이다. 루쉰은 번역문이 읽히기에 간혹 유창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가능한 이국화의 모습을 보존해야 한다.”

에 대한 번역이었다. 이 잡지에 게재된 번역 작품은 중국의 낡은 사상과 낡은 문학에 공격을 가해 사상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으며, 근대 번역문학의 서막을 열었고, 현대 문학 번역 활동과 발전에 토대를 다져 놓았다. 또한 중국 현대 번역문학사에서 원작에 충실 하여야 한다는 번역의 기본 원칙과 함께 직역, 이국화 위주의 번역 토대를 형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청년』 잡지가 번역하여 소개한 외국문학 작품은 중국번역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陳玉剛 1989 109).

『신청년』 잡지에 나타난 여성문제는 “국민계몽”의 한 부분으로 계몽운동을 주도하는 신지식인들의 관심사였다. 이로써 “여성문제”는 사회 변화 과정 속에 포함되었다. 20세기 80년대 이전의 페미니즘 사상은 여성해방을 사회발전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 이용하였다. 80년대로 들어서면서 중국에서도 페미니즘 번역연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지만, 페미니즘 사상이 페미니즘 번역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200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중국의 번역학계에서는 페미니즘 번역이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당시 발표된 학술논문이 총 6편에 달하였다(蔣驍華 2004 10).<sup>13)</sup> 그 후에 페미니즘 번역이론에 대한 논문들이 점차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발표된 논문들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페미니즘 번역이론의 특성과 성격을 논하였다. 페미니즘 번역연구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주홍(朱虹)은 서양의 페미니즘 번역이론을 중국 내에 최초로 소개하여 중국에서도 2002년 후로 페미니즘 번역이론, 페미니즘 번역실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주홍이 서양 번역학계에 소개한 중국 작품들 또한 모두 페미니즘 성격이 매우 뚜렷한 작품들이었다(穆雷 2003). 페미니즘 번역이론은 중국에서 아직까지는 번역이론의 주변에 머물러 있지만, 페미니즘 번역연구가들에게 번역에 대한 사고의 영역과 연구의 영역을 넓혀 주었으며, 페미니즘 번역이론과 실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고, 향후 페미니즘 번역연구에 많은 과제를 던져 주었다.

13) 6편의 학술논문은 랴오치이(廖七一)의 “重寫神話:女性主義與翻譯研究”, 란젠화(蘭建華)의 “性別差異與翻譯: 解讀女性主義翻譯觀”, 류야루(劉亞儒)의 “翻譯與女性” 및 류용(劉勇)의 “從女性翻譯理論看女性自我意識的覺醒” 등이다.

#### 4. 결론

인류 역사 속에서 통역과 번역은 통역사와 번역사에 의해 인류 발전의 건인차 역할을 해왔다. 남성들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제2의 성으로 남성의 지배와 억압아래 있었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지식인들은 이에 대한 불평등을 일찍부터 번역을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간주하여 번역을 통해 여성들의 불만을 표출하였고, 여성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다. 서양에서부터 일었던 페미니즘 사상과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20세기 초, 중국 근대 사회에서도 번역 작품을 통해 여성 인권, 여성해방, 여성담론에 대한 논쟁이 불붙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페미니즘은 해외유학을 하고 돌아온 신지식인들이 근대사회 건립과 계몽을 위해 서구의 문명과 문화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잡지 『신청년』 창간하였다. 잡지 『신청년』에 게재된 여성해방과 인권을 논하는 페미니즘 문학 번역 작품들이 도화선이 되어 중국 전역에 5.4 신문화 운동과 더불어 중국역사상 최초의 페미니즘 문학사조를 탄생시키고, 페미니즘 여성 작가들을 배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문학 시스템의 변방과 약세에 처해 있는 중국 문학 발전에 번역 작품은 새로운 수혈을 해주는 역할을 하여 구문학의 잔재인 문언문을 퇴치하고 백화문의 발전을 가져 왔으며, 이국화란 번역전략을 형성하여 번역이론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중국의 페미니즘 사상은 서양과 달리 여성의 주도하에 일어난 것이 아닌, 개화된 사상을 받아들인 남성 지식인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근대 국가 발전이라는 큰 전제에 부속물처럼 붙어서 발전하였지만, 여성의 순수한 시각으로 날카롭게 남성위주 사회의 폐단을 비판하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권신장을 이룩하였고, 새로운 페미니즘 문학사조를 탄생시키고, 페미니즘 번역이론의 기초를 세우는 등 향후 페미니즘 번역이론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번역 작품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가 한 사회문화 시스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사회문화 시스템 속의 다른 개체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전체적인 사회문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지를 바라보면서 번역 작품의 선정의 중요성과 번역자의 이데올로기, 번역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陳玉剛 (1989) 『中國翻譯文學史稿』, 北京: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出版.
- 陳琳 (2004) 「中國譯論的性別角色双重性」, 四川外語學院學報, 第20卷 第4期 97-100.
- 郭謙波 (1973) 『近五十年中國思想史』, 臺北: 龍門書店.
- 金文野 (2001) 「五四女性主義文學思潮簡論」, 新鄉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15卷 第1期 28-30.
- 金文野 (2004) 「中國當代女性主義文學思潮的流變」, 深圳大學學報 第21卷 第6期 94-99.
- 江永霞 (2008) 「翻譯與文化: feminism在中國的翻譯及其演變」, 淮北煤炭師範學院學報, 第29卷, 第6期 139-141.
- 蔣曉華 (2004) 女性主義對翻譯理論的影響」, 中國翻譯, 第25卷 第4期 10-15.
- 林丹婭 (1997) 中國女性文化: 從傳統到現代化」, 廈門大學學報, 第1期 71-77.
- 廖七一 (2002) 「重寫神話: 女性主義與翻譯研究」, 四川外語學院學報, 第18卷 第2期 106-109.
- 廖七一 (2000) 『當代西方翻譯理論探索』, 南京: 譯林出版社.
- 劉巨才 (1989) 『中國近代婦女運動史』, 北京: 中國婦女出版社.
- 劉軍 (2004) 「『新青年』時代 周作人 日本--[貞操論]\*中心\*」,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Humanities』.
- 呂青 (2004) 「體制變革以來女性主義的興起與發展」, 蘇州大學學報 第5期 109-112.
- 呂芳上 (1982) 「挪拉出走以後-五四到北伐青年婦女的活動」, 近代史研究 第5期
- 穆雷 (2003) 「翻譯與女性文學---朱虹教授訪探錄」, 外國語言文學 97-101.
- 秦弓 (1997) 「丁玲前期創作的女性主義闡釋」, 中國文化研究 總第17期 95-102.
- 須藤瑞代 (2005) 近代中國的女權概念」, 山西師大學報 第32卷 第1期 137-142.
- 王偉娟 (2006) 「從目的論角度談中餐菜單的翻譯」, 高等函授學報 教學研究卷 第1期.
- 尹旦萍 (2004) 「新文化運動時期女性主義思潮的崛起」, 湖北行政學院學報,

第2期 總第14期 69-74.

張竹君 (1904-04-23) 「女子興學保險會序」, 『警鐘日報』.

Christiane Nord (1997) *Translational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Jerome Publishing.

Even-Zohar (1990) *Itamaa, Polysystem Theory*, Poetics Today.

Neubert, A., & Shreve (1992) *Translation as text. Kent*,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Peter Newmark (1997) *A Textbook of Translation*, St.Jerome Publishing.

Simon, Sherry (2001) *Gender in Translation-Cultural identity and the applications*, London: Routledge.

Simon, Sherry (2001) *Gender in Translation-Cultural identity and the applications*, London: Routledge.

이양자 · 김문희 역 (2010) 『일본 중국여성사연구회, 사료문 본 중국여성사 100년』, 한울아카데미.

이화여자대학교 중국여성사연구실 (2005) 『중국여성, 신화에서 혁명까지』, 서해문집.

임수빈 옮김 (2007) 『근대 중국과 연애의 발견』, 서울: 소나무.

지현숙 (2010) 『『신청년』에 나타난 여성 담론 연구』, 중국사연구 Vol.67 중국사학회.

최지영 (1992)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이 근대 한국의 여성해방운동과 연극에 끼친 영향」, 언론연구논집 15-1,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언론연구소.

<분석자료>

『新青年』 제1권 제1호 1915년 9월 15일 「婦女觀」陳獨秀 / (원작작가: 막스 오렐(Max O'Rell))

『新青年』 제1권 제1호 1915년 9월 15일 「警告青年」陳獨秀

『新青年』 제1권 제3호 1915년 10월 15일 「婦女觀」陳獨秀 / (원작작가: 막스 오렐(Max O'Rell))

『新青年』 제1권 제3호 1915년 11월 15일 「歐洲七女杰」陳獨秀

『新青年』 제4권 제1호 1918년 1월 15일 「女子問題」陶履恭

- 『新青年』 제4권 제5호 1918년 5월 15일 「貞操論」周作人 / (원작작가: 요사노 아키코)
- 『新青年』 제4권 제6호 1918년 6월 15일 「易卜生主義」胡适
- 『新青年』 제4권 제6호 1918년 6월 15일 「挪拉 第一幕」羅家倫 (원작작가: 헨리크 입센 Henrik Ibsen)
- 『新青年』 제4권 제6호 1918년 6월 15일 「挪拉 第二幕」羅家倫 (원작작가: 헨리크 Henrik Ibsen)
- 『新青年』 제4권 제6호 1918년 6월 15일 「挪拉 第三幕」胡适 (원작작가: 헨리크 입센 Henrik Ibsen) 요사노 아키코)
- 『新青年』 제5권 제1호 1918년 7월 15일 「今日中國之政治問題」陳獨秀
- 『新青年』 제5권 제1호 1918년 7월 15일 「貞操問題」胡適
- 『新青年』 제6권 제3호 1919년 3월 15일 「終身大事」胡適
- 『新青年』 제4권 제6호 1918년 6월 15일 「易卜生傳」袁振英

[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translations of (western) feminist works in the modern magazine New Youth on the Chinese society and translation per se**

Kim, Jinah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fter the concept of feminism of the West was introduced to China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t began to take root in China also.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stablished in 1920, the Chinese intellectuals began repatriating from their studies abroad and enlightening the Chinese people. They did a lot of things like publishing the magazine named "New Youth".

At the turning point of literary development, China began to complement their literature and culture with many translated versions of foreign literature. The Chinese government carried out political, moral and cultural revolutions on the basis of those translations. Among others, the concept of women's liberalization became one of the most sensational issues in the Chinese society and cultur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western literature, feminism stood out and came to the centerstage of social arguments. The translated works not only gave rise to the feminist literature, but built the foundation of development of the Chinese national literature and the translation theories.

They greatly influenced the translation studies of feminist works of the West in the 1980s.

▶ Key Words: feminism, liberation of women, translation theories, Young Men of New World, translation studies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교수

a1103@hufs.ac.kr

관심분야: 현대 중국어 문법, 통번역연구방법론, 언어학

논문투고일: 2011년 08월 01일

심사완료일: 2011년 09월 02일

게재확정일: 2011년 09월 09일